

地選 ‘후폭풍’ 이언주 사퇴... 커지는 정청래 책임론

“지방선거 결과 책임 통감” 밝혀 “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했어야” 당 지도부 선거 대응 비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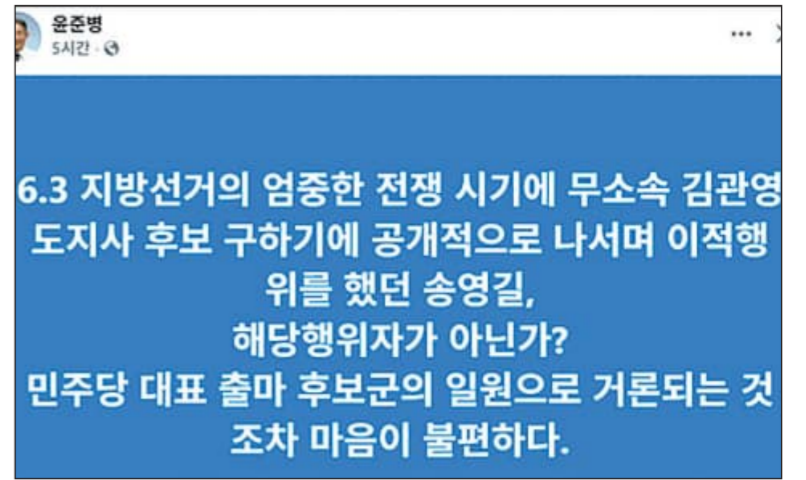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마주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6

개 광역단체장 중 12개의 단체장을 석권하는 등 압승했으나,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에서 패한 데 이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 보궐선거 등에서 패배했고, 유력했던 대구시장과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패했다. 때문에 민주당내에서는 정청래 지도부가 60%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선거 초반 전국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5대1로 대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지

도부의 부실한 선거전략과 공천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청래 지도부는 이같은 패배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정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접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친명계인 이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정청래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 정 대표의 사퇴 또는 차기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당은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정청래 지도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도층과 2030 청년 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며 “선거는 기대만으로 치를 수 없으며, 국민은 늘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준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의 이같은 사퇴에 따라 같은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선택과 정 대표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사진=윤준병의원 페이스북>

윤준병, 송영길 출마 비판... 당내 공방 격화

지방선거 당시 발언 문제 삼아 “당대표 후보군 거론도 부적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입장과 관련, “민주당 대표 출마 후 보군의 일원으로 거론되는 것 조차 마음이 불편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3 지방선거의 엄중한 전쟁 시기에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구하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이적행위를 했던 송영길, 해당행위자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의 이같은 비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을 재선거 부다 전북지사 선거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민주당 지도부가 윤단풍 격을 파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와 관련, “김관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인물

이고 결국 민주당 사람”이라며 김관영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힘을 모아야 할 곳은 자칫 국민 의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평택 선거구”라며 이같이 말한 바 있다. 이어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돌풍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민주당의 김관영 지사 제명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현재의 민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정청래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최근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과 관련,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면 더 나은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민주당 지도부가 윤단풍 격을 파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후보와 관련, “김관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뛰어난 인물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특별점검... 식품안전 강화

대형·소규모 산업체 대상 단속 식재료·소비기한 준수 여부 확인 여름철 식중독 예방 선제 대응

전북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7월 3일까지 4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시 급식 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제외 대상인 1회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행위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 행위 ▲영양사·조리사 의무 대상 고용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 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팀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하절기를 맞아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 단속을 통해 대형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 모자의료 안전망 구축... 진료협력체계 가동

내달부터 전북권 협력망 구축 전북대병원 권역센터 선정 참여 분만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

중 선정됐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원광대학교병원과 예수병원, 도내에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 8곳이 함께한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올해 기준 전주·군산·익산을 뺀 11개 시군에 이른다. 특히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전무해 임신부들이 출산을 위해 인근 시 지역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비율은 높고 있지만, 분만기관 간 연계·이송 체계가 미비해 응급 환자 수용 지연 사례가 반복됐다.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면 ‘임산-분만-신생아 치료’로 이어지는 연속적 관리 체계가 확립돼 중증·응급 상황의 진료 지연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고위험 임신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전원이 이뤄지면 최종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골든타임 확보로 직결될 수 있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나누면서 이송 절차가 표준화돼 응급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취약지 임신부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기대된다. 다만,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

보와 진료 인프라 확충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필수의료인 이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신생아분과 전문의마저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고위험 산모 조기 선별체계 고도화, 표준화된 전원·이송체계 마련, 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강화 등 협력 기반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도는 전문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인력 확충 지원체계 마련과 재정·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 필수의료 종사자가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해,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방상운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인해 체계적인 모자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 전북도당 선대위 해단 “이제는 성과로 답할 때”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총괄상임선대위원장 윤준병)는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는 윤준병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이원택 광역단체장 당선인,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인, 광역의원 당선인, 주요 선대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성원과 당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해단식은 선거 조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도민들이 보내주시신 신뢰와 기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선자들과 원팀이 되어 전북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당선인들 역시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기대에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선거는 끝났지만 더 나은 전북을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하나 된 힘으로 전북의 새로운 성장

김의겸·박지원 국회 입성... 본격 의정활동 시작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 완료



김의겸 의원 박지원 의원

김의겸·박지원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박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는 등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김의겸의원은 의회사무처로부터 소속 지역구 전 의원이 사용했던 의원회관 방을 배정받았고, 박지원 의원은 1021호에 배정되었다. 국회는 그동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사용했던 방을 관행적으로 배정해왔었다. /서울=김영목기자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14개 선거구로 많은 데다, 다선 의원들이 다수 재입성하면서 초선인 박 의원은 다선·연장자 우선 기준 등에 밀려 이원택 전 의원이 사용했던 507호(조망이 좋은 방)가 아닌 다른 방을 배정받게 됐다. /서울=김영목기자

과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날 해단식을 통해 선거 체제를

공식 마무리하고, 앞으로 도민 삶과 지역 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김영목기자

생활 속 필요한 안전수칙



무단횡단 금지



소방차 통행로 불법 주정차 금지



이륜모 안전모 착용



황사시 마스크 착용



외출 시 콘센트 뽑기

조지훈 당선인 “대체불가 전주 만들겠다”

인수위원회 출범 동시에 재정 회복 방안 역량 집중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전주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공표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잇는 ‘대체불가 전주’로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뤄야 전주도 바뀌어 산다는 시민의 간절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들었던 시민 여러분이 질박한 목소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지훈 당선인은 민선 9기 전주 시청제1의 과제로 재정문제를 꼽고, 내일



출범 예정인 인수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전주시 재정을 전면적으로 다시 진단하고 회복 방안 수립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이와 함

께, 모든 정책과 공약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생애 주기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형기업 장 자리의 마이스 산업 단지·전주역 세권 개발 사업의 속도 완성 △시민 거

버넌스 복원을 거듭 확인했다.

조지훈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형식적인 취임식 대신 전주시청의 공무원과 함께 민선 9기 시정의 방향과 내용을 주제로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지훈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시장 출마와 당선인 모두 과정에서 함께해 준 전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경제와 산업, 사회와 생활을 바꾸는 기술혁신의 선두에서 AI를 기반으로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AI 기본도시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잇는 ‘대체불가 전주’로 전력 질주할 것을 선언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공개 모집

12일까지 총 86명 모집

전주시가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아사업’ 참여자 86명을 공개 모집한다.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하반기 사업 규모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75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아사업 11명 등 총 86명이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현재 근로 능력이 있는 18세 이상(공공근로는 65세 미만) 전주 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공공근로사업은 3억원 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아사업은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연령과 가구 재산, 소득, 일자리아사업 참여 여부,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타 일자리아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오는 7월 6일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공공근로사업은 9월 11일까지, 지역공동체일자리아

사업은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시내버스 화재차 및 승강장 정비 사업 △도시심화천 환경정비 △맛배달 지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환경 정비와 지역 서비스 향상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사업 형태에 따라 주 20시간~35시간이며, 4대 보험 의무가입과 함께 시급 1만3200원의 임금과 주휴수당,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정소민 기자

한우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개발

국립축산과학원, 폭염 대응 ‘한우 사양관리기술’ 기대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4년 비타민 시(C)와 아미노산 등을 활용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용 사료 첨가제를 개발하며 여름철 한우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는 총 3개 농가에서 하절기가 시작되는 5월에 22개월령 내외인 비육후기 거세한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료 종류와 급여량, 첨가제 종류와 급여량, 사육 환경 등을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첨가제 급여 기간에 따른 효과를 비교했다.

첨가제는 하루 두당 50g씩 급여했다.

연구진은 여름철 비육후기에 해당하는 한우의 출하 시기가 12월 인 점을 고려해 기존 6월~10월 중순(약 4.6개월) 급여군과 5월 말~12월(약 6.1개월)까지 연장 급여

한 시험군의 도체 성적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여름철까지 첨가제를 급여한 한우는 등지방두께가 감소하고 등심단면적과 육량 지수가 증가하는 등 육량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등심단면적은 87.33㎢에서 100.73㎢로 증가했다.

출하 시기까지 첨가제를 연장 급여한 한우는 등심단면적이 추가로 증가했고 근내지방도(마블링)도 더 높게 나타나 육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연장 급여군의 근내지방도는 기존 급여군보다 15.6%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통해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저감 관리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염 이후 출하 시기까지 꾸준한 사양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찰 현충일 이륜차·폭주족 집중단속

이륜차 법규위반 총 32건 적발

전북경찰청은 현충일 지난 5일 도내 전역과 주요 거점에서 이륜차 폭주족 행위 억제 및 사고 예방 등 ‘주·야간 선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이륜차 무법 질주와 폭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찰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이는 경찰 활동을 전개해 범치 및 위력소환을 전개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 이를 전원을 자진 해산 조치 하는 등 단 한건의 인명 피해나 폭주 행위 없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내 전역에서 주간 일제단속을 벌여 신호위반 6건 안전도 미착용 11건, 기타 15건 등 총 32건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해 통고처분했다.

이러진 야간·심야 시간(5월 20-6일 4시)에는 완산, 덕진, 군산, 익산 등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예방 순찰 근무를 실시했다.

특히 5일 밤 전주 덕진구 관내 폭주 의심 이륜차 무리 20여명이 집결한다는 신고에 대응해 싸이카, 압력소환차, 교통경찰 등 경력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요 교차로 거점 배치 및 위력소환을 전개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기 전 이를 전원을 자진 해산 조치 하는 등 단 한건의 인명 피해나 폭주 행위 없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했다.

/정소민 기자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

전주시보건소, 건강 취약계층에 단계별 폭염 관리 강화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 노인과 만성질환자, 장애인 및 자가양호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전주시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 속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고온 환경에 취약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시 급증하는 온열질환은 고온 노출 시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을 동반하는 급성질환으로,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기존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건소는 13명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건강 취약계층 5386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열대·열대 등 기

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여름철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한다.

특히 보건소는 전주시상지정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주시역에 폭염 예보가 발표되는 즉시 관련 기상 정보를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과 주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 수칙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는 올해부터 폭염 특보 체계가 기존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경보·폭염중대경보)로 개편된

에 따라 단계별 대상자 관리에 나선다.

폭염 주의보 시에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전체에게 폭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군별 맞춤형 건강 안내 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경보 및 중대경보 시에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자 전체에 폭염 안내 문자를 송부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통화 및 대상자 건강 상태에 따라 직접 방문 등 강화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정소민 기자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도약 알린다!

전북·광주·전남 KMF 2026 공동 참가 서남권 협력 생태계 확장 기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북·광주·전남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및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가상융합산업 대전(이하, KMF 2026)’에서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혁신&허브 공동관’을 운영한다.

‘KMF 2026’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융합산업 전문 전시회로, 최신 가상융합 기술과 산업 적용 사례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16개국 606개사와 180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공동관은 전북·광주·전남 3개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 허브센터가 연합해 마련한 것으로, 총 12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서남권 기업 10개사가 함께 참여한다.

전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비롯한 서남권 4개 기관은 전시를 통해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축적해 온 가상융합 기반 기술과 주요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공동관은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첫 연합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

고 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서남권이 개별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가상융합산업 권역으로 도약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산업대전에서는 기술 전시 외에도 관람객과의 감성적 접점을 넓히기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진흥원은 전주 교동미술관과 협력해 부스 후면부에 ‘오늘 하루 중 가장 조용한 3분’을 콘셉트로 한 ‘갤러리워크(Gallery Walk)’를 운영하고, 가상융합 기술 전시 공간 속에서 지역 작가 3인의 작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서남권 가상융합산업이 기술 실증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산업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시 구성이 특징이다.

서남권 공동관에 참여하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번 KMF 2026 공동 참가를 계기로 개별 지역 단위의 지원을 넘어 권역 공동의 AI·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3개 기관은 앞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기업 지원·기술 실증·사업과 연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단일 기관이 추진하기 어려운 더 큰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미래 인재 양성 ‘AI 로봇·드론 교육’ 첫발

전주 4개 초등학교 대상 시범 교육

전주시가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AI 로봇 및 드론 융합 교육에 나선다.

시는 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서 전주시 4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4명을 대상으로 ‘AI 로봇·드론 교육’ 프

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로봇과 드론을 직접 제어해보며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육은 전주서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주남초등학교(9일) △전주용와초등학교(15일) △전주만성초등학교(16일) 등 총 4개 학교가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시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대상 학교를 선정했으며,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도 지원한다.

/정소민 기자

송천2동 ‘불법쓰레기 ZERO’ 환경정화활동

관내 환경정화활동이 펼쳐지며 송천2동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로를 걸었다. 송천2동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전미동 미산초에서 송천동 방면 대로변 ‘불법쓰레기 ZERO! 송천2동 클린지킴이’ 환경정화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위원(15명)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에 따른 대로변(인도)

버려진 종이, 캔, 플라스틱, PT병 등 생활쓰레기 600L 이상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지나는 차량들 사이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정착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병행했다. 이들의 “불법쓰레기 ZERO! 송천2동 클린지킴이” 환경정화활동에 따른 지역민들은 환한 웃음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관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스마트농생명·기회발전특구 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인증 특허·마케팅 등... 최대 4천만원 지급

전북TP가 도내 혁신기업 고도성장을 위해 시제품 제작부터 마케팅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형 종합지원에 나선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 클러스터육성사업' 일환으로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을 통한

공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인 스마트농생명 분야와 기회발전특구 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특장차,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건강기능식품, 라이프케어 등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성능·시험분석, 특허출원·등록, 사업화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에 필요한 전 단계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R&D 연계지원과 수요 맞춤형지원, 컨설팅, 사전기획으로 세분화돼 있으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도 허용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최종 평가 및 결과물 검수 이후 수혜기업에 직접 지급된다.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액의 10% 이상(부가세 별도)이다.

접수는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R&D 연계지원 및 컨설팅은 지역혁신정보시스템(riis.or.kr)에서 수요맞춤형

지원 및 사전기획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평가는 사전검토, 서면 및 대면 선정평가를 거쳐 7월 10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전북TP 이규택 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 보조금을 넘어 시제품 제작부터 인증, 특허, 온라인 마케팅까지 기업 성장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패키지"라며, "전북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농가 선정

총 4곳 전북 대표 진출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5일 전북농협 6월 정례회를 개최해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전북 예선 우수 농가로 △무진장축산농협 행복농장(양승철 대표, 양동) △고창부안축협 우림농장(김영진 대표, 한우), 한울농장(김상윤 대표, 육계) △익산군산축협 부곡축산(김흥연 대표, 육용종계) 4곳을 선정해 수상했다.

전북 예선 우수 농가로 선정된 4개 농가는 전북농협 본부장상과 상금 50만원을 수령하며 '제9회 청정축산 환경대상' 본선에 전북지역을 대표해 진출한다.

본선평가는 6월~7월 간 진행되며 서류, 현장,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8월~12월에 대상자검증 및 최종선정이 예정돼 있다.

김성훈 본부장은 "마지막 남은 본선평가에서도 전북 축산농가의 우수성을 알리며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8회에 걸친 청정축산 환경대상 본선에서 △제2회 초원목재지농장(우수상) △제3회 샘골농장(우수상) △제4회 송월농장(특별상), 무항농장(우수상) △제5회 태주농장(최우수상) △제6회 영풍농장(특별상), 희망농장(우수상) △제7회 무주반딧불농장(최우수상) △제8회 코리아농장(특별상), 상하금성목장(우수상), 정수축협소농장(우수상)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정소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농수산물 우수성 알린다"

서울푸드 참가... 18개사 공동 프로모션 전개

전북도-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6)'에 참가해 공동 프로모션 관을 운영한다.

바이오진흥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북 도내 우수 식품 및 해양수산 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식품 박람회를 통해 수도권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행사는 '2026년 전북해양수산창업투

자지원센터 운영사업'과 '2026년 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및 농식품기업통합마케팅지원사업' 일환으로 국내외 대형 바이어와의 매칭을 통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 프로모션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우수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업 총 18개사가 참여해 각 기업 주력 제품과 신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전통식품 및 농식품 통합 마케팅 섹션(8개사)에서는 △에이치온(전주·국수류) △삼강도(군산·절임식품) △익산농협 떡방앗간(익산·떡류, 과자류)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남원·추

어탕) △구리귀인(정읍·증류식소주) △단야푸드앤바이오(진안·자연발효식초, 장류 등) △남영제약(무주·도라지발효고) △지리산맑은물춘향할(남원·목류) 등 전통성과 지역 특색을 살린 건강 먹거리를 출격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섹션(10개사)에서는 △다해식품(익산·젓갈류) △동아식품(익산·김/조미김) △어이팔부각(남원·부각) △식도락푸드(부안·젓갈류/밀키트) △아리울수산물(군산·냉동수산물) △어성호(군산·밀키트) △웅고집(군산·장류, 어간장 등) △이고장식품(김제·죽류, 간편식) △진성식품(군산·냉동수산물) △하이오백(남원·부각) 등

신선한 수산물공품과 최근 트렌드에 맞춘 간편식(HMR)·밀키트 제품군이 국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대규모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지는 핵심 플랫폼인 만큼 도내 기업들이 전북의 우수한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대형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 기업들이 수도권 및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 마케팅과 바이어 상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경진원, 재생에너지 기업 집중 육성

관련 기업 이전 및 안착 '마중물' 기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전북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와 도내 재생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전북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특히 사업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

시범단지 조성과 전북도의 수소메가시티 도역,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등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발맞춰, 수소·태양광·풍력 등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의 전북 이동을 유도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전북에 소재한 태양광, 풍력, ESS, 수소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다.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제

5회(상용화) 지원과 경진원이 주관하는 마케팅(판로개척) 지원 두 파트로 나뉘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제품화 지원에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기업당 최대 2000만원), 성능평가 및 인증 획득(기업당 최대 1100만원), 전북대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 지원이 포함된다.

마케팅 판로개척 분야는 기업 브랜딩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 또는 인증 획득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한 기업도 경진원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면 및 대면 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기업이 가려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첨단 식품 기술 미래 방향 진단

첨단 식품 기술 성과 공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오늘과 10일 양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 엑스포(World FoodTech ConfEx 2026)'에 참여해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 농촌진흥청은 첨단 식품 기술 연구 성과와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대외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강화, 신규 연구개발 과제 발굴 및 기술사업화 연계 기반을 마련해 농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개회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농산부산물 Eco-순환기술 개발' 분과를 운영한다.

이 분과는 채소, 과일 등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과 새

활용(업사이클링) 기술을 통한 자원순환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진행된다. 산·학·연 기관이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산업계 전문가들이 기술사업화 방안을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 날 오전에는 '케이(K)-농식품자원 기능성성분 활용기반 고도화' 분과를 운영한다. 첨단 식품 기술 분야 신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구축·관리 중인 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 영양 개발 현황을 살피고, 미래 방향을 진단한다.

이를 통해 성장세가 뚜렷한 맞춤 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청년 두배적금' 재무교육

3개월 간 컨설팅 진행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는 6월부터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참여자 대상 금융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주완주지사 노후준비 전문강사가 2030세대 슬기로운 금융자산 관리법을 주제로 합리적인 소비·저축 습관,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및 부동산 계약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지역본부 권역 소속 노후준비 전문상담사가 개인별 재무목표의 구체화 및 자산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소그룹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금융교육 및 컨설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고 사업 참여 청년의 건전한 자산 형성 유도에 그 목적이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도내 거주 근로 청년(18~39세, 중위소득 140% 이하)이 월 10만원 적금을 할 경우에 전북도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모집인원 1300명을 목표로 하며 금융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금융교육 및 컨설팅 참여는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예수병원-전문건설협전북도회 건강증진업무협약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지난 4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와 회원사 임직원 건강 증진 위한 '건강검진 지정병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예수병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공식 '건강검진 지정병원'으로 지정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수병원은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협약 전용 건강검진 패키지 우대 제공 △신속하고 편리한 검진 예약 및 결과 상담 편의 제공 △추가 정밀 검사 시 폭넓은 맞춤형 의료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도-전북TP,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간담회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도모

전북도-(재)전북테크노파크는 8일 '2026년 상반기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새만금항 신항 항만,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을 안내하며 투자 활성화 지원을 추진했다.

이어 이차전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특화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LS-L&F배터리솔루션, 퓨처그래프, 성일하이텍, 피케이씨, 에코앤드림, 이디엘, 이피캠펙, 모나, 에프앤에스텍, 퀀텀솔루션 등 도내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 건의사항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부위원장,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 양선화 국장, 국무조정

실 민관합동유제합리화추진단 고현웅 민관협력2과장 등이 참석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정책자금 지원, 폐수처리 기반시설 구축, 법·규제 개선, 인력 수급 지원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폐수처리 관련 추진 현황을 안내하며 법·규제 개선 과정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을 소개했다.

전북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최고 3.7% 금리... 특별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JB 1·2·3 정기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7%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는 기본 금리 연 3.10%에 최근 1년 간 전북은행 정기예금 보유이력 없는 첫 거래 고객 가입 시 0.5%, 마케팅 활용 동의 고객 0.1%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0.6%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잡한 거래 실적이거나 추가 상품 가입 없이, 첫 거래 여부와 마케팅 동의만으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JB 1·2·3 정기예금'은 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이며 가입한도가 없는 상품으로 목돈을 안전하게 굴리려는 자선가나 만기가 돌아온 예금의 환승처를 찾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모바일 앱 '속뱅크' 또는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대학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연쇄 성명 내고 투명한 진상 규명 및 선거 행정 책임자 처벌 촉구

전북 지역 7개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연이어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선거 현장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2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지된 사태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각 대학은 공통으로 사태 발생 원인의 투명한 공개, 관련 책임자 규명 및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대학별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더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북대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했고, 원광대 총학생회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도의(道義)의 붕괴로 묘사했다.

예비 교사들로 구성된 전주교대는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전주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특정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민주주의 편에서 정의와 공공의 책임을 역설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전북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사태의 아픔에 반응하는 국민은 침묵하지 않으리"라면서 이 분노의 무게를 똑바로 짚으라"고 경고했고, 원광대 한중혁 총학생회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유린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이어 전주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주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주교대 중앙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사임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용 증가에 따라 본투표 인쇄량을 감축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학 단체들은 이를 단일한 예측이라고 일축하며,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쇄신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워크숍

전산시스템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5일 도체육회관에서 도내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경기단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안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전산시스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처음 적용되는 전산시

스템은 선수등록, 경기결과, 접수반영까지 가능해 전북장애인도민체전의 체계적인 운영이 기대되며 대회 기간 동안 정확하고 신속한 결과 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진안군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가 연달아 있다"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체험명소로 자리매김

누적 방문객 3만명 돌파 이용객 중심 환경 개선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이 누적 방문객 3만여 명을 돌파하며 고창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읍성 서문 인근에 위치한 전통예술체험마을은 전통문화와 공예,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꾸준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체험마을에서는 명인·명장이 운영하는 도예체험과 천연염색 체험,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자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 전통예술체험마을

<사진=고창군>

도예체험은 물레체험, 일반 도예체험, 도자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구성돼 흙을 만지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천연염색 체험은 쪽 산수화 염색, 땀기 실스크린 염색, 무지개 염색 등 자연의 색을 활용한 전통 염색기법을 직

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자수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체계를 기반으로 생활속 공예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승·전문가 과정도 별도 운영 중이다. 전통예술체험마을은 다양한 문화행사

와 공모사업을 연계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예주간 및 한복주간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선정돼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과 행사가 이어진다. 체험마을 내 공용체험공간인 '해뜰채'를 활용해 기존 상설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공예·문화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현대, 대한상의·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전북현대모터스FC가 제17회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을 수상.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스포츠 기관 및 프로스포츠 구단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포브스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시상상은 사회적 책임을 경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는 국내 대표 사회공헌 시상 제도다.

심사위원단은 단순한 기부와 후원을 넘어 팬과 지역사회, 환경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사회책임 경영 구조를 실현해 온 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전북현대에는 K리그 최초로 UN 세계식량계획(WFP)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 1억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스포츠를 통한 글로벌 인

도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했다. 또 경기장 내 발생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그린사이클'을 통해 출시 상품 300개를 완판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안전·복지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립풍물단, 18일 정기공연 개최

익산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30분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립풍물단의 제25회 정기공연 '연희(演戲) STAGE II'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연은 향(響)·합(合)·화(華)·흥(興)을 주제로 총 네 개의 무대로 구성된다. 소리와 몸짓, 정단과 움직임이 어우러지며 하나의 연희로 완성·확장되는 과정을 무대에서 입체적으로 담아낸다.

첫 번째 무대 '향'은 설장구의 절제된 움직임과 섬세한 체놀음으로 깊은 울림을 전하며 공연자의 문을 연다. 이어 '합'에서는 연주자들의 호흡이 하나의 장단으로 어우러지는 삼도사물놀

이가 펼쳐지며, 힘찬 가락과 역동적인 에너지로 공연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 '화'는 부모놀음의 화려한 움직임과 아름다운 춤사위를 통해 전통연희의 시각적 매력을 선보인다. 마지막 '흥'에서는 농악 특유의 신명 나는 가락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무대를 가득 채우며 관객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완성한다.

시는 이번 공연을 통해 전통예술이 지닌 매력과 가치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 고1 학업중단, 전년 대비 4.9% 증가

고교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음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3개교의 2025년 학업중단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고1 신입생 학업중단자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전북을 포함해 광주

지역에서 일제히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고교 학업중단자 수는 최근 7년 새 최고치인 1만 8661명을 기록했다. 특히 5등급제가 첫 적용된 지난해 고1 신입생 학업중단자 수는 직전 연도(0847

명)보다 6.1% 늘어 사상 처음 1만 명대를 돌파했다. 전체 학업중단자 중 고1이 차지하는 비율은 56.0%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내신 등급 구분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최상위 10%(1등급) 안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학생들의 불안감이 자퇴 등 학업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학교를 떠난 학생들의 대입 우회로 선택이 늘면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접수자는 1996학년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인 2만 2355명을 기록했으며, 2027학년도 대입 역시 2만 명대를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성민 기자

정읍 출신 권혁일·박상영, 국가대표 발탁

정읍시 이평면과 이평중학교가 함께 키워낸 권혁일, 박상영 선수가 각각 야구와 축구 종목 국가대표로 연이어 발탁되며 지역사회의 값진 결실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야구 종목의 권혁일 선수는 이평중학교를 지난 2021년에 졸업했다. 이후 전주 고등학교를 거쳐 현재 목포과학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오는 7월 열리는 2026 세계대학야구 선수권대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같은 해 이평중학교를 졸업한 프로축구단 대구FC 소속 골키퍼 박상영 선수도 난보를 전했다. 최근 21세 이하(U-21)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면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유망주로 주목됐다.

이익현 면장은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우수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자원안보위기 경보"주의"발령중

에너지 아껴쓰기 함께 해주세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절전
충전은 낮시간에

군산시, 고군산 섬잇길 조성 막바지... 이달 중 임시 개통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와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고군산 섬잇길 트레킹 코스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임시개통에 나선다. 고군산 섬잇길 트레킹 코스는 말도와 명도, 방축도를 연결하는 해상 보행 네트워크로, 섬과 섬을 걸어서 이동하며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관광자원이다.

지난 2017년 착공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은 현재 전체 노선 중 광대도 구간 급경사지 약 50m에 대한 연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구간은 급경사 지형과 해상 시공 여건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구조물로 설계됐으며, 현재 거더를 전문 제작공장에서 제작 중이다.

제작이 완료되면 이달 중 현장에 운반해 거더 거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거더 설치와 안전점검이 완료되는 즉시 고군산 섬잇길을 임시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임시개통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 시설물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오는 10월 정식개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임시개통을 통해 이용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보안을 거쳐 10월 정식개통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

정읍시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가정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최대 15만원의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반려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2026년 유기동물 반려동물 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 동물들이 다치지거나 아플 때 생기는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크다. 나아가 누구나 안심하고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정읍시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새 가족으로 맞이한 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다. 신청자는 보험 가입비와 납입료 명목으로 최대 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혜택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 정읍시 제2청사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해경, 어청도 해상공사 현장 응급환자 긴급 이송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지난 7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항내 해상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닥터헬기를 연계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8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15분경 어청도 인근에서 해상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A씨(남, 62년생)가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 증상을 보이던 운모에 힘이 없다는 신고가 119를 경유해 해경에 접수됐다. 환자 A씨는 3년 전 심근경색 시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즉시 어청도 출장소장을 현장으로 급파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한편, 신속한 후송을 위해 익산 원광대병원 닥터헬기 출동을 타진했다.

출동한 어청도출장소장의 안내와 함께 헬기장으로 이동한 환자는 오후 4시 51분경 어청도에 착륙한 닥터헬기에 무사히 탑승했다. 환자는 오후 5시 22분경 원광대학교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도서 지역이나 해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바다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식 기자

익산·정읍, 문화생활 확대 2(題)

익산시 '슬기로운 치킨로드' 개최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가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추억의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중앙동 일원에서 '슬기로운 치킨로드-그 시절의 우리' 2회차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치킨로드와 문화예술의 거리를 알리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치킨로드 조성사업 참여업체와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치킨과 맥주를 비롯해 한식, 분식, 베이커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방문

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행사 기간 진행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버스킹과 EDM 파티 등 다양한 공연은 축제의 흥을 더하고, 공예 체험 부스와 플라멩고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행사 기간 지역사랑 상품권 '다이어يوم'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된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맛있는 먹거리와 다채로운 공연, 체험을 통해 중앙동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풍성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가운데, 정읍시가 이에 발맞춰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시민의 일상을 채울 세 가지 6월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암아트브리드에서 '정읍의 봄 사진전'이 열린다. 이 전시는 한국사진협회 정읍지부가 주최한다.

이어 1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는 시암문화예술협동조합이 준비한 녹두꽃 문화공예 축제(페스티벌)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풍류정원(박재석) 소극장에서 한국무용협회 정읍지부가 주최하는 '댄스 플레이리스트(Dance Playlist) 2026'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준비된 모든 행사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 대폭 늘어난 만큼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예술을 더 가깝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풍부한 즐길 거리를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에서 즐기는 여름 미식 여행”

지역 특색 담은 대표 미식 4선 소개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제철 해산물과 전통음식, 군산수제맥주를 아우르는 '군산 대표 여름 미식 4선'을 소개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서해의 풍요로운 바다에서 건져 올린 갯벌 굴과 바닷고, 군산의 전통 발효음식인 울외장아찌, 그리고 지역 특색을 담은 군산수제맥주까지, 군산은 풍부한 식재료와 독창적인 음식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미식도시로 여름철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먼저 여름철 제철을 맞은 갯벌 굴은 군산 여름 미식의 대표 주자다. 군산 앞

바다에서 잡아 올린 갯벌 굴은 두툽한 살집과 쫄깃한 식감으로 여름철 최고의 별미로 꼽힌다.

특히 군산을 대표하는 짬뽕과 함께 즐기면 얼큰한 국물과 탱글한 갯벌 굴의 식감이 어우러져 군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맛을 선사한다.

또한 군산시 대표 수산물인 바닷고도 여름철 원기 회복에 제격인 별미다.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으로 구이와 찜,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여기에 군산의 전통 향토음식인 울외장아찌는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 주는 빠질 수 없는 별미다.

오랜 세월 군산 사람들의 밥상을 지켜온 향토음식으로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군산수제맥주는 국내 최대 보리 생산지 중 하나인 군산의 지역성을 담은 대표 특산품이다.

특히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수제맥주와 지역 먹거리, 다채로운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군산의 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시 관계자는 "군산은 풍부한 해산물과 전통음식, 그리고 수제맥주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식도시"라며, "낮에는 제철 해산물과 향토음식으로 입맛을 채우고, 밤에는 시원한 수제맥주와 음악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기후위기 대응 이행안 마련

사전 정비 확대 등 30개 맞춤형 과제 추진

정읍시가 최근 찾아지는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적용할 30개 지역 맞춤형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마련한 법적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할 지역 맞춤형 이행안을 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 회복력



지난 5일 열린 '정읍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보고회 <사진=정읍시>

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부문 16개 추진 전략과 30개 세부 이행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과제로는 △공공 하수 처리 기반 시설(인프라) 확대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관리 체계 마련 △재해 위험 지

역 사전 정비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유호연 부시장은 "모든 부서가 협력해 기후위기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역사문화벨트 미래 그린다

시민창조스쿨 참여팀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백제 역사문화벨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시는 참여형 정책개발 프로그램인 시민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 시민창조스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시민창조스쿨은 금마면과 왕궁면을 중심으로 한 백제 역사문화벨트 활성화를 주제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 익산 시민

누구나 4-8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희망연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내달 22일 최종 6개 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은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시민창조스쿨 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특강과 토론, 현장답사,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제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게 된다. 또한 팀별로 연구비 70만 원이 지원되고 자문위원과 시의원, 공무원

원, 토론촉진자 등이 정책 구제화를 돕는다.

팀별 정책 제안은 9월 열리는 발표대회에서 공개된다. 시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면 상금이 지급되며, 실효성이 높은 제안은 시정 반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백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모녀의 하루 in 군산' 참가자 모집

10일부터 총 20팀 선착순

군산시가 엄마와 딸을 위한 감성 여행 프로그램 '모녀의 하루 in 군산'을 오는 20일에 운영한다.

이 행사는 타지역 모녀 20팀(40명)을 선발해 당일 군산의 역사와 감성을 오롯이 담은 원도심 관광 명소를 투어하는 행사이다. 군산시 공식 SNS계정 '모녀의 하루 in 군산 레트로 편' 게시글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코스는 △모녀가 함께 교복을 입고 특별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경암동 철길마을 △국가등록 문화유산 제183호로 등록된 군산의 대표적인 근대기 주택 신홍동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 △군산 안의 클래식한 골목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말랭이마을 등이다.

'모녀의 하루 in 군산'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평소 말로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는 이 순간이 매년 참가자들로부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지로 담아내고, 3편을 선정해 편지를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 종료 후에는 참가자 사회관계망(SNS) 후기 공유 이벤트도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기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많은 모녀들이 군산에서 특별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군산만의 감성을 담은 레트로 코스에서 엄마와 딸 사이의 공감과 추억을 깊이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1인당 25,000원이며, 군산 외 타 지역 거주 모녀만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는 군산시 프로그램인 편지쓰기와 낭독 시간은 이번에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참가자들은 카페에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엄마 혹은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편

권익현 부안군수, 민선9기 출범 준비

간부회의서 현안 재점검 및 공약 실행 로드맵 마련 지시



권익현 부안군수

부안군은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권익현 군수가 처음으로 주재한 간부회의를 열고 민선8기 마무리와 민선9기 출범 준비를 위한 군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군정 공백 없이 현안업무를 쉼 없이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 군수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군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부안군정 방향에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내주셨다"며 "동시에 기본소득과 기본일자리 등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향한 미래 준비를 더욱 구체화해 달라는 뜻도 함께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군정은 다시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민선8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전 부서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소관 현안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권 군수는 민선9기 출범을 앞두고 부안군의 핵심 현안이 국가계획과 도정계획, 국비 확보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군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민선9기 군정목표와 군정방침, 공약사업 확정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고, 현안사업과 공약 연계사업의 쟁점사항, 행정절차, 소요예산 등을 정리해 민선9기 출범 직후 실행체계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 군수는 고유가와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과 사용 편의성 확대도 강조했다.

권 군수는 "아직 신중하지 못한 군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독려를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안내해 군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와 안전관리도 주요 지시사항으로 다뤄졌다.

권 군수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과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소관 분야별 재난 취약요인과 부서 간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경사지, 하천변, 배수로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민선9기는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를 군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전 공직자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현안업무, 민생지원, 재난안전 대응에 빈틈없이 임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문화의전당, 연극 '분홍립스틱' 공연

18일 무대 올라



<사진=고창군>

고창문화의전당이 연극 '분홍립스틱' 공연을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에 무대에 올린다.

연극 '분홍립스틱'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쌓인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다.

고된 시집살이의 기억을 간직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치매라는 현실 앞에서 묵은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특히 정혜선, 김예령, 박형준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감정 연기와 안정적인 호흡으로 무대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 공연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컴퍼니

와 고창문화의전당이 주관한다. 공연료는 1만원이며 고창군민 특별할인으로 3000원 (청소년 1500원)이다.

티켓예매는 오는 11일 9시부터이며 인터넷 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홈페이지 현장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진행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재난 대응 선도 지역 자리 매김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재난관리 유공 안전한국훈련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 20일 부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지진과 화재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전을 반복해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보다 현실감 있는 훈련 상황 설정을 위해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해금 훈련 기획팀을 구성하고 지난 2024년 6월 12일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실제 지진상황을 고려해 지진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고강도 복합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단체와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매뉴얼에 기반한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또 군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해 군청에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이 발생한 훈련 현장을 영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현장에 마련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조치사항을 지시하는 등 실전에서 필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부안 해플마루 지방정원에서 진행된 제13회 부안마실축제 1건의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연이어 부안소방서와 재난·화재시 중장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재난 대응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산림소득 지원사업 접수

고창군이 8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7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사업으로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사업(토양개량제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사업(울타리, 관수·관정,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생산장비 등 지원) 등 6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 지원 품목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관내 임업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림경제팀을 통해 수령·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해 산림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김제시는 오는 19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의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변호판을 영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 주요부서의 징수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142-211)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정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의 중요한 귀중한 재원이 만큼, 체납액이 되는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경, 장학금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캠페인 동참

부안군 근농민재육성재단은 최근 부안해경양경찰서를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정기 후원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 관계자들은 부안해경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단의 주요 장학사업과 후원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안해경 직원들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며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장학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의 뜻을 전했다.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는 군민 한 사람당 한 계좌 이상 장학금 정기 후원에 참여하는 법군민 운동으로 매월 1만원의 소액 후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재단은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키우는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언어·역사학자 정재환 초청 강연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특강을 준비했다.

시는 '역사가 만든 성공 공식: 한글에서 K-브랜드까지'라는 테마 아래, 오는 11일 이짜라 닷툼 대표, 25일 정재환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초청해 시청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강연을 진행한다.

11일 강연을 맡은 이짜라 강사는 기업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기업의 흥망성쇠와 창업자의 철학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사를 다루는 이번 강연에서 이짜라 강사는 'K-브랜드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 대한민국, 세계의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삼성, SK하이닉스, LG 세 기업의 창업 정신과 결정적 전환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세계 중심에 선 과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25일 강연을 이어가는 정재환 강사는 개그맨 출신 방송인에서 학자로 변신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인물로, 2000년 한글문화연대 결성 및 2013년 역사학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우리말과 한국어 연구에 힘쓰고 있다.

언어·역사학자로서 정재환 강사는 '세종의 쉬운 문자 창제 전략과 세종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지 제스처 예정이다.

두 강사를 초청해 진행되는 6월 역사 강연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처럼 시민에게 역사적 사실의 고찰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무장면 지사협 태양광 벽부등 3개마을 설치

고창군 무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강필구, 민간위원장 류창현)가 지난 4일 공동, 목욕, 월봉 3마을 35가구에 안심불빛 벽부등을 설치했다.

태양광 벽부등은 고창군이 희망나눔캠페인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추진하는 '안심불빛 벽부등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고창군 무장면 지사협 위원들은 마을 어두운 골목길 등을 찾아다니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마을을 돌아다니실 수 있도록 벽부등을 설치했다.

강필구 위원장은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곳에 태양광 벽부등을 설치돼 마을길이 안전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류창현 위원장은 "밤에도 안전한 무장면이 되도록 지사협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고춧가루 가공산업' 속도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 공모 선정

고창군 '고춧가루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특화품목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선정으로 고추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군은 사업 총괄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 참여주체 간 협력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고창농협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기반으로 원료 수매, 가공, 유통을 담당해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품질관리, 제품 개발, 기술 지원을 맡

아 고춧가루 및 김치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의 핵심은 생산·유통 연계체계 구축과 가공산업 기반 고도화이다.

생산농가와 가공업체, 유통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약재배와 공동출하 시스템을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B2B·B2C 유통 전략과 온라인 판매망 확대를 통해 판로를 다변화한다.

가공 분야에서는 HACCP 기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춧가루 및 김치 소재 가공시설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해 생산·가공·저장·판매 기능이 통합된 플랫폼을 조성한다. 더불어 점일배추, 김치양념, 소스 등 원·부재료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고창해풍고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품질인증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축제, 유통망,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또한 고추·김치 산업과 관광·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고추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로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축제 연계 직거래장터 운영

농산물 홍보 및 농업인 소득 증대 도모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026 김제 모악산 뮤지컬 페스티벌'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김제의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악산 축제장 일원에서 운영되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대규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터가 열리는 축제 기간동안 참여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한층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여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참여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다채로운 게임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에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국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모악산 뮤지컬 페스티벌을 통해 김제의 청정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이번 직거래장터가 물가 상승으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 농업인과 소비자가 모두가 상생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갯벌축제' 성료... 3만5천명 찾아

참여형 프로그램 '호응'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지난 5~7일(3일간) 열린 '2026 고창갯벌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에는 3만5천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갯벌에서 동족을 직접 캐보는 조개 캐기 체험부터 풍천장어 무료 시식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어린이 해적단 보물찾기를 비롯해 △조개캐기 체험 △맨손 풍천장어 잡기 △해설이 있는 갯벌 건강걷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만들 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코너에서는 새우튀김, 동족갈국수, 동족전 등 수산물 특화 먹거리가 인기 인기를 끌었다. 풍천장어와 지주식 김을 시중가보다



지난 5~7일 열린 '2026 고창갯벌축제' 갯벌걷기 프로그램 <사진=고창군>

30% 할인된 가격에 현장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긴 줄이 이어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 고창갯벌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풍

천장어, 바지락, 지주식 김 등 고창의 우수한 수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농업·관광 융합 지역특화산업 본격화 2(題)

남원시, 현미 브랜드화 시동...6차산업 거점 육성 순창고추장마을, 66억 투입 'K-발효관광' 명소화

남원시가 남원하주발효마을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성희)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2026년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2억 원(도비 10억 원, 시비 6억 원, 자부담 6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남원시를 현미푸드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원하주발효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렁농법 현미쌀을 활용해 제빵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종업체이다. 최근 생산시설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등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 선정은 대량생산 체계를 마련해 남원 우렁쌀(현미)을 활용한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남원 현미 브랜드화 컨소시엄' 운영 등 가공·유통·소비·체험·관광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 모델로써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농민, 가공업체, 외식업체, 관광업체, 판매자 등이 참여하는 '남원 현미푸드 연합' 구성을 통해 상생협력체계를 만들어 생산시설 구축 후 현미 프리믹스를 지역 제빵·제면 소상공인에게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고, 제분시설은 소정의 사용료로 개방하는 등 지역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2031년까지 매출 291억 원, 고용창출 277명, 관광객 유입 52만 2천 명, 지역농산물 활용 610톤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역농민 30명, 지역 소상공인 16개 업체, 예비창업자, 지역 중·고등학교, 수도권 팬슈머 등이 참여하는 '남원 현미 미식사업 컨소시엄'도 구성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관광 중심도시 조성 위해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다. 총 66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순창군의 대표 관광자원이자 장류산업의 상징인 고추장비민속마을을 새롭게 재정비해 전통 발효문화와 관광, 체험, 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명품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추장비민속마을을 중심으로 '발효테마파크'와 장류산업특구를 연계해 'K-발효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고추장비민속마을의 관광 기능 강화다. 우선 마을 내 골목길을 활용한 '골목가드닝 조성사업'을 통해 8개 테마정원을 조성한다. 총 3,415㎡ 규모의 특색 있는 골목정원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

하고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골목갤러리 조성사업'을 통해 장독대와 정원, 골목길을 활용한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고추장마을만의 독창적인 야경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된다. 노후된 장류체험관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체험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빈집을 활용한 쉼터 조성과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다양한 관광진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놀자고', '알자고', '팔자고', '하자고' 등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떠먹이 페스타 개최, 발효식품 산업관광 프로그램 운영, 고추장마을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관광 도슨트 양성 등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완주군의회>

제10대 완주군의회 당선인들 당선증 교부

비례대표 2명 등 당선인 11명 7월 임기 시작 앞두고 준비 착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지난 5일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당부했다. 이날 당선증을 교부받은 당선인은 가선거구 소병호·이진영·윤여연·유이수, 나선거구 최광호·성중기·심부건, 다선거구 김규성·임기현, 비례대표 이미경·이효진 등 총 11명이다. 당선증 교부식에 함께한 유의식 의장은 "제10대 완주군의회를 잘 이끌어 군민의 행복과 완주군 발

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인들은 당선증을 받은 뒤 군민들의 선택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10대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15일 당선인 교육과 23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7월 1일 시작되는 제10대 완주군의회 의원 임기에 대비해 원활한 의정활동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근기자

유희태 군수 복귀 첫 조화...민선9기 완주 비전 제시

직무 복귀 후 첫 직원 월례회 "공동체 회복" 적극행정 주문

완주군이 8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6월 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유희태 완주군수 직무 복귀 후 첫 공식 직원 조화로,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다가올 민선 9기의 청사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월례회에서 유 군수는 먼저 공백이 동안 격무와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서 흔들림 없이 군정 발전을 이끌어 온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군수는 "지금 완주군은 민선8기의 마지막 한 달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이 될 민선 9기를 선제

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며 향후 군정 전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완주군 자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및 '태양광 햇빛 소득'을 통한 '함께 잘사는 도시' 구축, 대한민국 최초 실물 인공지능(AI) 클러스터 조성, 수소사용모빌리티 특화단지, 인공지능(AI) 정보 데이터 센터 및 방산 혁신 집적 지구 구축을 통한 '순환 경제도시' 실현을 꼽았다. 또한 국립사회복지개발원 유치와 지능형 농업(스마트 농업)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문화·관광·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공표했다. 특히 유 군수는 선거 이후 지역 사회



<사진=완주군>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동체 민관 협력을 회복하는 데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하며, 공직자들에게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군수는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적극 행정을 펼쳐 '행복지수 1번지 완주군'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근기자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대상 지원대상 등 목적차 상세 설명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시설관리지원센터가 오는 25일 완주군청 가족문화교육원 가족홀에서 '2026년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번 설명회는 노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김명근기자

설명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시설관리지원센터 소개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지원사업 및 순화방문 운영 안내 △노인 사회복지시설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지원 △지원 대상 및 등록 절차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노인 사회복지시설 지원 대상 시설 및 신규 시설 관계자다. 신청은 기관명과 참석자명을 기재해 홍보 안내문에 안내된 업무용 연락처(010-4446-7800)로 문자 접수하면 된다. /완주=김명근기자

남원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 획득

2030년까지 인증 자격 유지 참여위원회·옴부즈퍼슨 운영

남원시는 지난 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인증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30년 6월 4일까지이며, 남원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및 유관기관(남원교육지원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지킴이(옴부즈퍼슨) △내부정책 조정기구 등을 운영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은 시민과 아동,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순창장류축제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전개

위해서서 관광설명회·홍보 활동 현지 여행업계와 협력기반 구축

순창군이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된 순창장류축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해 중국 현지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순창군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서서 방문해 현지 여행업계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순창장류축제 관광설명회와 현장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외국인 관광객 유

치 확대와 순창장류축제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중국 현지 여행업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순창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일 위해서서 열린 관광설명회에는 위해서서국제여행사, 산둥동영국제여행사, 진화국제여행사(북경) 유한회사 산둥지사, 중국국제여행사 위해서서, 산둥항신국제여행사, 석도국제항운 등 위해서서 주요 여행사 6개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발효마을 1997, 세계인과 함께하는 고추장 만들기, 글로벌 장 문화학교 등을 소개했으며, 순창발효테마파크와 강천산국립공원 등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세계 각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다. 재단은 이번 관광전에서 순창군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순창만의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 개시

관광지·업체 46곳 할인 혜택

순창군이 이달 8일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앞서 순창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 참여지역 공모'에 선정됐으며, 혜택 등록과 시스템 구축, QR 스캐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 부터 전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

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순창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참여업체와 관광지에서 QR코드를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순창군은 총 46개 업체 및 시설을 디지털 관광주민증 혜택지로 운영한다. 분야별로는 관람 2개소, 숙박 6개소, 체험 7개소, 식음료 24개소, 쇼핑 7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혜택으로는 △강천산국립공원 입장료 1,000원 할인 △순창발효테마파크 입장료 20% 할인 △강천힐링스파 단체할인을 적용 △지역 식음료 및 체험업체 할인 등이 제공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서울국제관광전서 홍보전

전주·남원과 공동홍보부스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이사 선윤숙)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순창만의 독창적인 발효문화와 관광자원을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올해 41회를 맞은 서울국제관광전은 세계 각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관광박람회다. 재단은 이번 관광전에서 순창군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전통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순창만의

차별화된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홍보부스는 전주, 남원시와 협업해 운영되며 눈길을 끌었다. 세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퀴즈 및 톨컷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는 상생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와함께, 현장에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21회 순창장류축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재단은 순창의 주요 관광지와 숨은 명소를 소개하며 축제 정보를 제공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고씨네 별밤극장' 19일 저녁 무박 2일 8편 상영

완주미디어센터가 오는 19일부터 20일 새벽 2시까지 무박 2일로 즐기는 '제4회 고씨네 별밤극장'을 완주미디어센터 옥상에서 개최한다. 지난해까지 늦가을에 진행하던 과정을 싱그러움 조여름으로 옮겨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올해 상영작은 장편 2편과 단편 6편으로 구성했다. 저녁 8시 장편 <산양들>(유재욱, 107분)을 시작으로 <4000BPM>(황지완, 6분), <겨울잠>(김우석, 10분), <자매의 등산>(김수현, 18분), <미미공주와 남근킴>(이재원, 20분), <만 할 이유 없는 임신>(노경무, 30분),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이현빈, 31분) 등 다채로운 단편들이 이어진다. 이어 장편 <잔챙이>(박중하, 94분)로 밤샘 상영을 마무리한다.

육아 중인 주민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을 배치한 놀이방을 운영하며 실내 상영 공간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영화를 상영해 다양한 연령대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영화제는 무료 관람이며 우천 시에는 실내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한다. 환경을 위해 개인 컵이나 텀블러, 본인 쓰레기를 수거할 분투 지참을 권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미디어센터(063-262-189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근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환경의 날" 자원순환 캠페인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전자제품 자원순환 거버넌스(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한 '전자 폐기물 제로(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폐전자제품의 올바른 배출과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형가전 등 총 21건의 폐전자제품이 수거·배출됐으며,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친환경 홍보물품을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환경의 날을 맞아 추진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확대하고,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기자

광한루원, 콘텐츠 촬영지 각광 전국적 관광 홍보 효과 '톡톡'

남원시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이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 촬영지로 잇따라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촬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광한루원은 지난해 KBS 다큐멘터리 '신들의 정원' 촬영을 통해 전통정원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알린 바 있다. 이후 MBC 대형 사극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의 주요 촬영지로 활용되며 방송 관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촬영이 진행되며 젊은 세대와 전국 시청자들에게 광한루원의 매력을 알렸으며, KBS '굿모닝 대한민국', KBS '생생정보', KBC '세모네모', JTBC 다큐멘터리 '전북의 발견' 등 다 양한 생활정보·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광한루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이 소개되며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중 대형 사극 드라마 촬영이 예정돼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홍보영상 촬영과 국가유산청과 협업하는 KBS 다큐멘터리 촬영도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광한루원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매력 이 해외에도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미선 관광시설과장은 "방송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광한루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남원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임실군 수천·지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임실군은 지난달 29일 임실군 경계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신덕면 수천리 324필지 106,625.3㎡의 토지와 신덕면 지장리 360필지 158,390.0㎡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결정된 것이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640-2581)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참여 업체 10곳, 장학금 기탁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참여 업체들이 무주군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장학금 5백만 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이번에 뜻을 모은 업체들은 △어랑(대표 조철희), △우리칼국수(대표 백은경), △커피 부는 안성택(대표 서현주), △현자네맛집(대표 어경아), △바비&수리(대표 서미경), △샘이갑밥(대표 신샘), △무주카페브라운(대표 이은주), △천지가든(대표 박순자), △유한회사 자연 밥상 여여신(대표 김성원), △달콤베이커스(대표 김형심) 등 총 10곳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무주산골영화제가 개최되는 예천문화관 일원에서 식사와 간식, 무주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디저트류 등 60여 가지 다양한 음식을 1만 원 이하로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음식으로 무주의 맛과 인심을 선보이고 영화제의 격을 높이는 데도 일조해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전하는 장학금이 무주의 내일과 산골영화제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지역의 인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전국 수두 확산세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와 보육 시설을 중심으로 수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유입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수두 누적 환자 수는 1만 4,6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389명) 대비 약 9.3% 증가한 수치로, 5월 들어 확산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수포에 직접 접촉할 때 감염되며, 미열과 전신 가려움증을 동반한 수포성 발진이 특징이다. 전염력이 강해 밀집도가 높은 보육·교육 시설은 한 명만 감염되어도 대규모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선제적인 예방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안군은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진료 및 격리 △감염 시 등원·등교 중지(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을 때) △적기에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의 주요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 적극적인 징수 활동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호평

무주군이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의 세외수입 행정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2025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실적을 평가했다.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액 정리 실적, 과태료 징수율, 우수사례 발굴 등 9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가운데

무주군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체납처분 강화와 △체계적인 세입 관리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점 등이 호평받았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이번 수상은 세외수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적극적인 징수 활동과 법적 절차 준수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을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과세·징수 체계 개선,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주민 신뢰도 쌓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징수반 운영,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활용, △장기·소액·무재산 체납에 대한 분류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5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235억 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231억 원이며 98.3%에 달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폭염 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폭염 대응 합동 전담팀 구성 현장대응·취약계층 보호 집중

임실군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고 열돔 현상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온열질환과 폭염피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해 폭염 상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근무 체계와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8℃ 이상에서 발효되는 "폭염중대경보"를 비상대응

체계에 반영해 단계별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군은 폭염 상황에 따른 현장대응과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무더위 피난처 역할을 하는 무더위쉼터 운영도 확대한다.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334개소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시설 점검을 완료했으며, 열대야에 대비해 기존 오후6시까지 운영하던 쉼터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체감형 폭염저감 시설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 등에 그늘막 22개소(고정형 10, 스마트형 11)를 운영 중이며,

이들 중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의 폭염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살수작업도 추진한다. 군은 살수차 5대를 입차

해 읍·면 주요 도로 23km 구간에 대한 집중 살수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더위를 완화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 6,253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축산업 분야 피해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이장단과 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인적 안전망과 협력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기간대 농작업 자체와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폭염 상황에 따라 살수차 운영 구간 확대와 폭염예방 물품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분야별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AI 역량 갖춘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맞춤형 직업훈련 경력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수군은 8월 2중 전산교육장에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센터장 허명숙)가 주관하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행정·사무 분야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며, 취업 의지가 높은 관내 경력보유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은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행정·사무 분야의 기본 역량을 익히는 것은 물론, 최근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AI 활용 사무실무 교육까지 함께 수강한다.

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한 직무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 현장에서 요구

되는 업무 수행 능력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번 개강식에는 관내 5개 기관·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교육생들의 취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여성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임실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해당된다.

피해 보상을 희망하는 농가는 피해 발생 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5일이 내에 경작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피해 실태를 조사한 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군은 피해 실태 조사 시 피해 농업인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임실군>

의 참석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피해액을 산정하여 농가에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임실군은 야생동물 출몰 시 신속하게 포획 활동을 벌이는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 능형 철조망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71회 현충일 추념행사

장수읍 남산 충혼비서 개최 순국선열 호국영령 희생 기려

장수군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장수읍 남산 충혼비에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린 추모 사이렌에 맞춰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또한 장수군 장계면 육십령 충영탑에서는 덕유회(회장 박정례) 주관으로 별도의 추념식이 열렸다. 최훈식 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존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눈길

건강한 먹거리 이룬 및 체험 실습

무주군이 지역 아동들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을 도모하기 위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는 무풍초등학교에서 '건강 제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무풍초등학교와 무풍초병설유치원 재학생 11명(아토피·천식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김형심 감사(제과기능사)가 이론

교육과 체험 실습을 맡았다. 이론 교육 시간에는 알레르기 유발 유해 물질과 아토피 예방을 위한 건강 먹거리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체험 실습 시간에는 친환경·우리 밀 등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쿠키와 케이크 등을 만들어 보는 기회도 가졌다.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사업으로, 상하반기 1회씩 총 2회가 진행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완료

태양광 기반 등화장치 무상 설치

장수군은 도로주행형 농기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의 시인성을 높여 일반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 없이 진행됐다.

군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업체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지속차량표시 등 13대와 방향지시등 7세트를 부착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등화장치는 태양광을 활용해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별도의 배터리 교체가 필요 없으며, 유지관리 부담이 적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농가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기원 캠페인

추가 공모 선정 염원

관내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관내 사회단체들이 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염원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진안군이 농어촌 기원 기회를 확대하고 추가 선정에 대한 민들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단체는 릴레이 방식으로 캠페인에 동참하며 "진안은 이미 준비를 마친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은 진안의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5개 내외의 군 단위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진안군은 4월 22일 4개 지자체가 신청해 8.8대 1의 치열한 경쟁

률을 기록했다. 이번 상황 속에서 진안군은 공모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 왔다.

최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화폐인 '빠방카드'를 중심으로 교통·복지·정책 수당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춰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역사회 역시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공모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활 서비스 축소 등 농어촌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취한결전기 김형균 이사, 부안 경로당에 소형 소화기 보급

부안군 부안읍이 여름철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경로당 80곳에 어르신 맞춤형 '소형 소화기'를 보급하며 선제적인 화재 예방 태세 확립에 나섰다.

이번 보급은 최근 실시한 경로당 여름철 안전점검 현장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현재 각 경로당에는 일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어르신들이 무거운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접한 취한결전기 김형균 이사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화재 안전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결심했다.

이에 김형균 이사는 8일 부안읍을 방문해 힘이 없는 어르신도 한 손으로 가볍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소화기를 기탁했다.

김형균 이사는 "어르신들이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탁 취지를 전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군산 해신동, 시민참여예산 활용 취약계층에 전기압력밥솥 지원

군산시 해신동(동장 전미영)은 지난 5일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저소득층 20가구에 전기압력밥솥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받은 주민들은 "오래된 밥솥을 쓰다 보니 밤에서 냄새가 나고 늘어붙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제품을 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번 지원에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해신동장은 "시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뜻깊은 제도"라며 "이번 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임근석 기자

전북경찰청 총경 인사



정읍서장 강경남 총경	자치경찰위원회 강길범 총경	범죄예방계장 김재영 총경	순창서장 박삼서 총경	수사과장 박천환 총경	임실서장 백형석 총경	형사과장 선 원 총경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장 설은미 총경	완주서장 손광혁 총경	진안서장 신은영 총경	112상황실장 유봉현 총경	112상황실장 이광현 총경	상황팀장 이성재 총경	장수경찰서장 이여정 총경

장수군 지역사회, 국제대회 출전 청소년에 성금 전달

후원금 1천만원 모금 농협은행 200만원 기탁

장수군 지역사회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5일 장수 청소년꿈터 달빛에서 '국제대회 출전 청소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로 모금된 성금 1천만 원을 씨드림에 전달했다.

씨드림은 장수 초·중학교 학생 6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으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 공과대학에서 개최되는 '2026 로봇 프로젝트 세계대회(WPI Open International)'에 대한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성금 모금은 국제무대에 도전하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총 1천만 원이 모금됐다.

특히 NH전북농협지역사회공헌단·장수군지부는 농심천심의 마음을 담아 지역 인재 육성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해 의미를 더했다.

농협지역사회공헌단(위원장 이원희)은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진 봉사단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금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모금된 성금은 참가 학생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대회 참가비 등 국제대회 출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사진=장수군>

김제 망해사,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5일 성금 약 333만원 기탁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국가자연유산 명승인 김제 망해사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33만 5,51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망해사는 사찰을 방문한 신도들이 '바람의 종'을 울리며 모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해 기탁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성금 기탁을 이어오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망해사 주지 우림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신도들의 뜻을 모았다"며 "신도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석 진봉면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매년 변함없이 이웃을 위한 온정을 전해주시는 망해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익산푸드트럭연합회, 서동축제 수익금으로 나눔 실천

익산서동축제의 즐거움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익산시는 '익산푸드트럭연합회'가 성금 100만 원을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에 기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익산푸드트럭연합회가 지난달 열린 '2026 익산서동축제'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시민들과 함께 만든 축제를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익산푸드트럭연합회는 지역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엄민수 익산푸드트럭연합회장은 "축제를 찾아주시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뜻깊은 나눔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권수길 남원 지역가수, 어르신 경로 위안잔치 마련

권수길(운봉읍 지역가수)은 지난 5일 바래봉행복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약 150여 명을 모시고 어르신 경로 위안잔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표 운봉읍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어르신들이 함께 참석해 옛가요와 풍토 등을 관람하며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난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개최된 '설맞이 어르신 위문공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어르신 행사로, 지역 어르신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권수길 씨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과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종원 기자

교통사고 예방수칙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차량 간

안전거리 준수



장 시간 운전 시

적절한 휴식



음주 운전

절대 금지



〈一事一言〉



무상교육 국고 '0원', 미래를 포기한 재정 결정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야당때는국가책임집권후지방책임 교육을 숫자로만 본 정책의 후퇴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조선번개(朝三暮四)'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끝내 '0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제도 도입 7년 만에 국가가 교육의 책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이관이다. 교육을 '투자'가 아닌 '줄여야 할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의 문제이며, 권력이 약속을 뒤집는 정치의 문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출발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47.5%의 재정을 부담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떠받쳐 왔다. 그러나 최근 재정 당국은 이 버팀목을 스스로 제거하겠다고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 이후 시도교육청이 전체 비용의 95% 이상을 떠안게 된다.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한 수요 감소로 축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면, 그만큼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의 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1조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교육 지원을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이며 미래를 지키는 보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국고 지원 '일몰'이 거론되고 있다. 표를 얻을 때는 '국가 책임'을 말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기조와도 배치된다.

재정 당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교육 재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계산이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묶여 있다.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연간 1조 원 규모의 무상교육 비용까지 떠안게 된다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업부터 축소될 수밖에 없다. 노후 시설 개선, 특수교육 지원, 다문화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등 가장 절실한 영역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문제는 지역 격차로 이어진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을 비롯한 지방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끊기면 순간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

는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국가가 앞장서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육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은 곧 국가의 미래다. 학령 인구 감소는 예산 축소의 이유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국가는 결국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일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 논리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가의 책무다. 교육을 비용의 잣대로 재단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된다. 백 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라면 교육 예산은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 책임'이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최소한이다.

오늘의시

날개 / 신경림

강에 가면 강에
산에 가면 산에
내게 붙은 것
그 성가신 것들을 팽개치고
부두에 가면 부두에
저자에 가면 저자에
내가 가진 그 너절한 것들을 버린다
가벼워진 몸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는
활활 새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
그러나 어찌랴
하룻밤새 팽개친 것
버린 것이 되붙으며
내 몸은 무거워지니
이래서 나는
하늘을 나는 꿈을 버리지만
누가 알았으랴
데미로 모이고 쪼로 쌓여
그것들 서서히 크고

단단한 날개로 자라리라고
나는 다시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
강에 가면 강에서
저자에 가면 저자에서
옛날에 내가
팽개친 것 버린 것
그 성가신 것
너절한 것들을 도로 주워
내 날개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낫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원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가 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사설

9조 투자, 이제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완성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는 전북 산업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대형 호재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유치만으로 지역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자본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시험인증, 사업화 기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전북연구원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실증 환경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AI·로봇·수소 산업을 지원할 연구기관과 산업진흥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기업이 투자해도 기술 개발과 인력 공급, 사업화 지원 체계가 미흡하면 투자의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안배 차원의 정치적 접근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배치가 돼야 한다. AI 분야의 데이터·기술 기관, 로봇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기관, 수소 분야의 에너지 전문 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한다면 새만금은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전북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현대차의 투자가 씨앗이라면 공공기관 이전은 그 씨앗을 키울 토양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북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9조원 투자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9조원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축하가 아니라 실행이다.

독자투고

집회현장 개인방송, 표현의 자유 넘어 타인의 피해가 될수 있다



최근 집회·시위 문화가 변화하면서 유튜브·인터넷 방송·실시간 스트리밍 등을 활용한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장의 분위기와 참가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 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일부 방송에서는 참가자들의 얼굴과 신상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의 얼굴을 근접 촬영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시키거나, 특정 참가자의 직장·학교·가족관계 등을 추적해 공개하는 이른바 '신상털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현장 모습을 촬영하는 수준을 넘어, 참가자의 차량번호·명찰·휴대전화 화면까지 송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후 온라인상 집단 비난과 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포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직장 내 불이익, 사회적 낙인,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시민 참여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 역시 이러한 행위를 결코 가법계 보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특정이 가능하도록 유포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반복적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회 참가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방송 진행자는 조희수와 자극적인 콘텐츠 경쟁보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참가자 역시 불법 촬영이나 개인정보 유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자체와 신고를 통해 건전한 집회문화 조성에 함께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더욱 빛난다.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역시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부안지국 010-7247-3947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완주지국 010-3672-0308
송전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살던 곳에서 평생 돌봄” 남원시, 통합돌봄 본사업 본격화

남원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남원형 통합돌봄의 추진 현황과 주요 사업, 기대 효과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시범사업 넘어 본사업 안착 지역특화 5대 서비스 확대 민관 협력 기반 돌봄체계 구축

□ 시범사업 성과 바탕... 본사업으로 본격 확대
통합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 발굴, 돌봄수요 조사, 지역자원 연계 등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본사업 체계로 전환했다.

특히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욕구에 맞춘 돌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복지·주거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 특화사업 5종 운영... 생활밀착 돌봄 강화
남원시는 본사업 전환과 함께 2025년도 중점 대상군에 대한 필요도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5대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추진하며, 보다 촘촘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식사지원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식 9,000원 단가의 영양 가득한 일반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죽, 당뇨식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단을 지원할 계획으로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관리에 기여할 예정이다.

방문재활운동 서비스는 재활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운동지도와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일상생활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통해 낙상 위험이 높은 가정 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손잡이 설치나 문턱 제거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운영해 관내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동행 서비스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과 진료 동행, 약 수령 등을 지원하며, 의료 이용 전반에 걸친 불편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남원시는 이들 특화사업을 통해 의료·생활·주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차등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 체계적인 서비스 신청 절차 운영
남원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돌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비스가 확정되면 수행기관에 연계되어 본

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제공 이후에도 3개월 단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와 추가 욕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민·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돌봄체계 구축

남원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증가에 대응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한 모니터링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지원계획 수립 이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는 대상자 발굴과 계획 수립,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노인복지관은 가정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 욕구 변화, 위험징후 등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이나 조정까지 연계하는 촘촘한 돌봄 관리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자 발굴과 제도 안착에 총력”
남원시는 앞으로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사업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종원 기자



언제 어디서나 즉시 사용가능한 수동식 심폐소생기

안전에 일상을 더하다